



곡성 문화

2017년(단기 4350년) 5월 1일 / 7호

발행인 : 곡성문화원장 고광운 편집인 : 빙신호 ☎ 061-362-0890

흐르는 강물 어우러진 강가 아름다운 자연
작은 마을과 들판을 휘감아 굽이쳐
출렁출렁 넘실넘실 유유히 흐르는 비단물결 대황강
은어, 메기, 쏘가리, 참붕어, 참계, 잉어들의 낙원 대황강은
햇불을 들고 물고기를 잡는 햇불놀이가 아름답다하여
곡성팔경 중 하나인 대황어화(大荒漁火)의 자태가 고즈넉하다.

그러나 주암댐 건설로 수심이 낮아지면서 어패류의 수가 점차 감소하는 등
생태계가 변화하고 있어 보성강의 옛 정취가 그립다.
주변에는 곡성의 옛 현 터인 옥내현의 동현 터,
중요무형문화재 돌실나이와 낙죽장도,
반구정 유원지, 태안사, 경찰충훈탑, 신승점장군의 유적지가 자리하고 있다.



삼강오륜의 현대적 가치와 효경칭찬생활문화 운동

-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사회, 살기 좋은 국가를 위하여 -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님께 효도·공경·봉양하는 것이야말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부모-자녀간의 갈등과 결손가정의 증가로 인한 심각한 가정 문제로 비

인간화 사회 등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 미력하나마 삼강오륜의 하나인 부위자강(父爲子綱)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초나라의 제후 섭공(葉公)이 공자에게 자신의 통치 수준을 으스대다가 핀잔을 받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주 정직한 사람이 있어, 아버지가 양을 훔치었는데 아들이 이를 증언하였습니다.”

이에 공자 왈, “섭공, 당신은 통치 질서 확립을 위해서 아들이 아버지까지 고발하란 말이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소. 아버지는 아들을 숨겨 주고 아들은 아버지를 숨겨 준다고. 정직이란 바로 그 속에 있는 거요(葉公語孔子曰, “吾黨有直躬者, 其父攘羊, 而子證之.” 孔子曰, “吾黨之直者異於是, 父爲子隱, 子爲父隱. 直在其中矣.)” 논어 권 13-”라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해석자들은 공자가 필요에 따라 팔이 안으로 굽는 불편부당한 사람이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자는 권력의 횡포로부터 가정을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효의 가치를 위해서 사회적 약속을 무시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논어(論語)에서 공자는 효(孝)를 언급하였으나,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았습니

다. 인(仁)이 170여 회 등장하는데 반하여 효(孝)는 14번만 등장합니다. 아버지를 섬기라는 말도 강조하지 않았습니

다. 공자는 아버지의 병을 걱정하는 아들에게 오히려 제 몸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히 평범한 아버지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부자(父子)간에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부위자강(父爲子綱)은 “아들은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근본이다. 자식은 부모님을 정성껏 섬겨야 한다.” 즉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는 강령입니다.

“子曰 弟子入則孝 出則第 謹而信 汎愛衆而親人 行有餘力 則以學文”

(자왈 제자입즉효 출즉제 근이신 범애중 이친인 행유여력 즉이학문)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이 어린이는 집에서 효도하고, 밖에서는 공손하게 처신해 믿음을 줄 것이며, 널리 사람을 사랑하되 어진 사람을 사귀라. 이렇게 행하고도 남는 힘이 있거든 학문에 힘쓸 것이다(사서)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아버지의 권위는 절대로 필요합니다. 자식의 자발적 효도도 여기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권위가 곧 권위주의는 아닙니다. 경(敬)으로 풀이하면 아버지는 아들 앞에서 조심하고, 자식은 부모의 권위에 마땅히 순종하고,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자녀의 불효보다 더 나쁜 것은 부모의 역할을 포기하는 소행입니다. 특히 인간의 개체적 존엄성이 더욱 강조되는 현실에서 부모의 권위를 비인격적으로 행사하여 가장 아끼는 자식을 수단화해서 는 안 됩니다. 이는 부자간의 단순한 가정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비인간화 현상에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부모가 자식을 정상적으로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효경칭찬생활문화 운동에 솔선수범하는 곡성군민이 됩시다. 이것이 바로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사회, 살기 좋은 국가를 만들어 가는 첩경(捷徑)이라 생각합니다.

글/곡성문화원장 고광운

동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약은 한결 같이 푸르고 정겹습니다. 요즘은 연두 싹이 마치 꽃인 듯 피어나면서 싱그러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동약은 형제 봉이 조화를 이루고 다른 작은 봉들이 아기자기하게 모이고 어우러져 그 아래에 사는 우리들은 포근하고 편안하기 그지없습니다. 앞으로 솟아있는 통명산, 곤방산은 동약과 함께 곡성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있습니다. 동약의 뒷걸음 감고 흐르는 순자강이 압록까지 이르는 동안 펼쳐주는 절경은 보는 이들의 감동을 자아내기도

합니다.

필자는 작년 12월에 부임하여 바로 곡성군민으로 등록했습니다. 필자도 인근 지역 출신이고 돌아다니기를 좋아한 탓에 운전대를 해서 곡성을 많이 지나본 적이 있습니다. 지나던 중 대항강 주변에 차를 세워 함께 매운탕을 먹으며 잠시 머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곡성은 보성강(대항강)과 섬진강이 합쳐지는 곳에 압록이라는 유원지가 있고 기차마을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았습니다. 이제 일시적 일지 아닐지 모르겠으나 곡성 주민의 한사람이 되어 지내보니 곡성을 새롭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풍광 좋고 공기가 맑은데다 사람들의 마음이 고결한 이곳은 늘 우리들의 삶을 정화시켜주는 듯합니다.

나는 직에 맞게 이와 같은 삶의 환경이 훼손되지 않고 대대로 유지되도록 하는데 조그만 역할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필자는 부임 후 곡성이 고령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고 이에 따른 우리들의 역할설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고령은 삶의 지혜가 풍부하기도 하지만 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취약합니다. 군민의 65세(고령은 아님) 이상이 32퍼센트에 근접하므로 이분들을 우리 지역의 오피니언리더로 인식해야 하고 생활안전 활동의 주요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형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과속에서 비롯됨을 알아야 합니다. 노인 교통사고는 대부분 피해자인 노인의 무단횡단에서 기인합니다. 그러나 노인은 정신능력이 떨어지므로 운전자의 주의, 서행 의무가 더 요구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법규상의 잘잘못만을 따지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과속차량은 아무리 단속을 강화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곡성경찰은 “내 고향 토크”제를 꾸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고령자들이 여러 가지 생활위험으로부터 안전한가를 수시로 살펴 대처코자 한 것입니다. 고령자 가옥 방문 횟수를 통계 관리하는 등 내실 있는 제도의 시행으로 주민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있습니다. 요컨대, 곡성경찰은 고령 안전 활동에 중점을 두고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한 주민의 삶을 보장하는데 더욱 노력하고자 합니다. 병행이 알을 품고 있는 형세로 일컫는 동약은 변함없이 고즈넉한 자태로 곡성을 포근히 안고 있습니다.

글/곡성경찰서장 김영창

유근기 곡성군수 '2017 대한민국 가장 신뢰받는 CEO 대상 수상'

- 지속가능한 경영부문 대상 수상 -



대한상공회의소와 동아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2017 대한민국 가장 신뢰받는 CEO 대상'에 유근기 곡성군수가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2017 대한민국 가장 신뢰받는 CEO 대상'은 소통과 협치 행정으로 성실한 공약실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끌어가는 CEO를 대상으로 선정하는 상이다. 유근기 군수는 작년 5월, 영화 “곡성”

의 개봉시기에 맞춰 긍정의 역발상이 담긴 ‘영화 곡성(哭聲)과 다른 곡성(谷城) 이야기’란 신문 기고를 통해 곡성군 브랜드가치의 획기적인 상승을 이끌었으며, 이는 제 6회 곡성세계장미축제의 대성공과 곡성방문 관광객 수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특히 장미축제가 전남 102개의 축제 중 6개의 흑자축제에 포함되는 값진 성과를 거뒀다. 또한 곡성군 사상 처음으로 “KTC(한



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성능시험센터, 코레일호남권인재개발원”의 두 개의 공기업을 유치했으며, “오산운곡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지역발전은 한층 더 앞당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아울러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적극 육성하여 공정하고 착한 경제구조를 구축하고, 귀농·귀촌인에 대하여 귀농인의 집 마련, 집수리 지원, 현장실습 및 교육 등 귀농·귀촌 단계별 서비스를 지원했다. 이로써 귀농·귀촌 인구가 2014년 157명, 2015년 681명, 2016년 891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와 함께

“곡성군 청년 발전 기본조례”, “곡성군 청년 농림어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희망곡성 청년파트너”를 활발하게 운영하여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유근기 군수는 수상 소감을 통해 “그 동안 천원버스·효도택시·장애인 콜택시를 통한 군민 교통복지 증진, 섬진강 침실습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생태관광 활성화 도모, 농업인재활성센터 개소로 농업인 건강증진, 정부 3.0 평가 대통령표창 수상 등을 통한 군위 선양에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가장 낮고 겸손한 자세로 600여 공직자와 함께 군민복지와 소득증대를 위해 세 배 이상 더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오는 5월 19일부터 28일까지 열흘 동안 섬진강기차마을에서 열리는 ‘제 7회 곡성세계장미축제’때 곡성을 꼭 방문하여 주실 것”을 요청했다.

글/곡성군청 홍보팀장 박광천

박찬주교육장 곡성에서 농촌교육의 희망을찾다 단 한 명도 뒤처지는 학생 없는 행복한 교실



곡성교육지원청(교육장 박찬주)은 맞춤형 학력 증진 프로그램을 역점과제로 정하고 학습부진학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실 수업 팀티칭 학부모 학습지원단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학부모 학습지원단은 교실수업 활성화를 위해 정규 수업시간에 학습 부진학생을 지원하는 제

도로서 초등학교 1~3학년 다인수 학급 중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국어, 수학 단위수업에서 교사들과 함께 참여한다.

이를 위해 기초 학력 코티처 역량을 갖춘 학부모들 중에서 학생들의 발달 단계를 이해하고 담임과 레포를 형성할 수 있는 인성을 가진 학부모들이 교육기부의 일환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수업 시간 내 학급 담임교사와 협력 학습을 위해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학습 부진학생이

나 학습이 느린 학생의 경우 자존감이 떨어져 학교에 가기 싫어지고 이는 곧 학교 부적응 및 사회 부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여 학습 부진학생의 수업 시간을 의미있게 만들어주고자 시행하게 되었다.

박찬주 교육장은 가정과 학교가 하나되는 교육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력을 갖춘 곡성의 기적을 이룬다는 비전아래 열정을 다하고 있다.

글/곡성문화원 회원 류재주



꿈과 재능을 키워가는 행복한 인재교육의 요람!

성실, 경애, 창조의 배움터 석곡중학교

석곡중학교장 고영진

석곡중학교(교장 고영진)는 1958. 02. 28 석곡중학교 설립 기성회를 조직하고, 1960. 02. 23 석곡중학교(공립)로 인가를 받아 1960. 05. 02. 개교하였다. 그 후 2005. 03. 01. 석곡중·목사동중학교와 통합되었으며 2017. 02. 09. 제 55회 졸업 24명, 총 졸업생 수 7,159명을 배출하였다. 2016. 03. 01. 부임한 제 18대 고영진 교장은 산자수명한 자연 속의 가족마을 돌실(石谷) 배움터에서 성실, 경애, 창조의 교훈아래 열정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함께 코스모스처럼 유연하고 아름다운 학생들에게 인격과 지성을 겸비한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교 가

천만첩 두루 영봉 둘러 서있고/ 앞뒤 뜰 좋은 터에 자리를 잡아/ 포부는 이화세계 흥의 정신 찾아서/ 인재를 길러내는 석곡중학교

옥여수 넘치는 보성강변에/ 석중의 귀동자가 모여드는 곳/ 참되고 슬기롭고 굳세게 배워서/ 인재를 길러내는 석곡중학교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운영

기초·기본학력 증진과 교과 심화활동을 위한 농어촌 거점별 우수중학교 운영을 지원받아 기초학력 미달 학생 제로화와 학력 증진을 위한 방과후 교육활동 강화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기본반과 심화반으로 분반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다. 한편 여름·겨울비즈니스쿨 운영(7월, 1월)을 통해 학력증진 프로그램으로 국어, 영어, 수학을 집중 지도하고 있다.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으로

따뜻하고 공감하는 감성 기르기

전교생 1인 1악기 연주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울려라 팡파레(트럼펫, 트롬본, 튜바, 유포늄, 색소폰연주, 클라리넷), 미라레 솔(바이올린), 딩동딩동 어때(전자피아노, 윙윙타임, 핸드벨), 선율에 사랑을 싣고(플룻, 락커 본능, 밴드), 둥둥둥 얼썩!(난타), 전교생 매일 한사람씩 점심시간에 1인 연주회, 오케스트라 공연 감상 등 무학년제 예술동아리 운영으로 따뜻하고 공감하는 감성을 기르는 신나는 체형 학습은 석곡중학교 학생들만의 자랑거리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음악활동 및 협연 과정을 통해 풍부한 음악적 정서와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있으며, 자기주도적 연주능력을 신장하고 연주를 통해 석곡 코스모스축제, 곡성 장미축제, 학교축제 기량 발표 등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즐겁고 꿈이 가득한

모두가 다(多) 책 읽는 학교

다양한 독서활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독서의 생활화를 기하고, 필독·권장·추천도서 선정, 개인별 독서록 지도로 독서의욕 동기를 부여하고 있으며, 독후감 수행평가 반영으로 독서습관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사제동행 독서 활동, 좋은 책 60권 읽기, 과목별 토론 수업에 필요한 도서구입 및 독서, 학부모의 독후감 행사 참여 축구, 독서활동 시간운영(월08:10~08:55, 매주 점심시간)은 평생 독서하는 습관을 길러 풍부한 교양과 창의적인 사고력을 신장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매력적인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으로

몸짱! 마음짱 만들기

신체활동을 통하여 체·덕·지를 겸비한 인재를 육성하고 체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굿모닝(GMS) 스포츠의 활성화, 건강체력 평가(심폐지구력, 유연성, 순발력, 근력/근지구력, 체지방률, 체질량지수, 비만평가, 심폐지구력 등),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돌실 토요일스포츠데이 운영을 통해 즐겁게 공부하면서 운동하는 건강한 학교문화 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배려와 나눔이 있는 공감의 인성교육,

효경칭찬생활문화 운동 앞장

‘올바른 인격 완성의 첫걸음은 부모님께 효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는 학교장의 투철한 효도교육 철학은 효(孝)를 바탕으로 이웃 어른들에게도 나의 부모를 대하듯 공경하며, 1교 1덕목인 공수인사를 통해 타인에 대한 공경을 생활화하고 있다. 학생회 활동을 활성화하여 자율과 책임의 인권존중 생활화 유도, 서

로에게(교사-학생, 학생-학생, 교직원-교직원) 감사하는 언어생활 지도 등 효경칭찬생활문화 운동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은 귀감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심정골 효자효녀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인 봉사활동 미담은 군민 어르신들의 칭찬이 자자하다. 학생들이 직접 캔 쪽으로 쪽떡을 만들어 인근 노인요양원 및 마을회관 2곳에 나눠 드린 효체험활동은 어른들에 대한 공경심을 기르고, 나만이 아닌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산교육의 장이었다. 비록 작은 정성이었지만 정말 고마워하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본 학생들 또한 뿌듯함을 느꼈고, 봉사활동의 보람에 대해 느끼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돌실공동체(교장 고영진)에서는 2학기에 자유학기제 활동으로 어르신들 ‘자서전 써드리기’ 봉사활동을 계획하고 있는데, 마음을 나누는 봉사활동을 통해 어르신들과의 좋은 인연이 쪽 이어질지 기대하고 있다.

글/곡성문화원 팀장 배숙영





제 2회 곡성효문화대상 수상

효행부문

곡성군 오곡면 조연숙 여사



결혼생활 42년, 오직 주변인에게 효의 실천을 몸소 보여줌으로써 효부이자 현모양처로서 그 근본을 일깨워 준 조연숙 여사(65세)의 미덕은 열과 정성이 묻어

난 헌신적인 사례이다. 순천시 주암 유림가정에서 4남매중 장녀로 태어나 1975년 결혼 출가한 조연숙 여사는 한학으로 유명한 오곡면 유교 가문대에 풍습을 익혀 조석으로 시부모님께 문안인사를 드린 현숙한 여인이자 며느리였다. 밥상을 올리고 나갈 때는 뒷걸음으로 나가는 예법을 늘 실천한 분이다. 그런 와중에 시아버지는 곡성향교 전교를 역임하신 후 60세에 뇌경색(풍)으로 반신불수가 되었다. 돌아가실 때까지 5년여 간 병수발을 드리고 극진히 모신 눈물겨운 효부라 칭송이 자자했다. 그런 와중에도 낫설고 물 설은 시가 맥에서 직장에 매달린 남편의 도움 없이, 논 15마지기, 밭 5마지기 포함 4,000여 평을 단손으로 농사를 지으며 슬하에 4남매 뒷바라지까지 잘 부양한 역적스런 덕에 반듯한 직장과 결혼을 시켜 분가를 시켰다고 한다. 예컨대 논 1마지기 모내기 한 가지만 하려면 그 당시 성인 2명의 일손이 필요하므로 논 15마지기는 30명에게 품앗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꼬박 30일간 일손을 빌리면서 시부모 봉양에 소홀함이 없는 효부라 해도 부족함이 없다.

더구나 홀로계신 시어머니께서 1997년에 자리에 눕자 돌아가실 때까지 3년 여 동안 대소변을 받아낸 뒤 목욕은 기본이고, 몸 기력에 좋다는 음식과 약을 몸소 챙겨서 지극정성으로 봉양했다고 한다. 병간호와 농사일에 지쳐 몸살을 앓으면서도 남편에게 부담이 될까봐 힘든 간병을 감추는 배려와 겸손함의 행실까지 갖춘 비단 같은 현모양처이다.

전통적인 시가택의 유교적 가풍을 지닌 손위 시누이가 3분이고 완고하신 시부모 슬하의 독자 남편이라 혼처 자리의 중매를 50번이나 넣어도 마다한 자리에 여사님이 자진한 심성에 시부모님이 감동하였을 정도이다. 그리고 손위 시누이가 3분이 꼭 참석 한 힘겨운 제사도 정석으로 지냈다고 한다. 매년 9봉상의 제사를 40여 년간 지내고 있으면서 제사 잣불구입 부터 진설법도 여사님 혼자 달인처럼 도맡고 있다. 이렇듯 제사와 대명절을 포함 가족생활까지 챙기자면 매월 2번 이상씩 되지만 **가훈처럼 '화목'으로 행사를 이끌어 온 훌륭한 분이다. 마을에서는 효경의 실천에 대한 본보기가 되는 효부로 또 경로당 청소년을 위한 봉사도 2012년부터 맡아 6년째 소임과 미덕을 갖춘 분이다.**

이와 같이 가정에서는 현모양처이자 효부요, 이웃과 마을에서는 상부상조하며 아름다운 미풍을 이어가는 따뜻한 사랑의 실천에 앞장서 오신 조연숙 여사께 곡성문화원 가족의 이름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

사회복지부문

(전) 곡성 삼강원 사회복지사 사무국장 김갑득



자랑스런 사회복지부문 효문화대상은 평소 투철한 사회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며 후배들의 모범적인 사례를 갖춘 (전)곡성삼강원

사회복지사 겸 사무국장 김갑득(72세)씨가 수상하는 영광을 갖게 되었다.

수상자 김갑득님은 연로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등 열띤 학구열을 통해 사랑의 나눔터 동지 곡성삼강원(2000~2013)에서 약 15년간 사회복지사와 사무국장을 역임하는 등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자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역의 약자를 위한 노력에도 힘과 정열을 쏟았다.

우리 고장 곡성의 중앙로 입구에 자리잡은 사랑터 동지 곡성삼강원은 1951년 6.25동란 와중에 설립되어 그간 수많은 외로운 아동들이 성장하여 사회로 진출하였고, 1984년부터는 지적장애인 거주 시설로 80명의 거주인과 42명의 직원이 함께 동고동락하며 살아오고 있다.

김갑득님은 곡성삼강원에서 사회복지사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랑과 봉사, 섬김과 나눔의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지적 장애인들에게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과 장애 극복 의지를 길러 주고 지적 장애인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보호하는 일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원훈인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는 천의지성(天意地成)의 실현을 위해 전남공동모금회 지원 열린 세상, 행복을 낳은 꽃집, 드림하우스 준공 기여, 목욕탕 신축, 여가활동프로그램을 비롯 고충처리위원회 활동, 자조모임, 거주인 보호자 모임, 자원봉사 안내 모임 등 사회복지 시설·지원 활동 사업에 최선을 다하며 젊음을 불태웠다.

한편 사랑의 마음을 직접 실천하며 나누는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후원금과 물품으로, 기도로 함께 해 주신 따뜻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나눌수록 풍성해지는 따뜻한 사랑을 함께 키워가는 연결고리요, 촉매제 역할로 사명을 감당하며 보람을 만끽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983년부터 청소년의 범죄예방을 위한 자원봉사자로 검찰청 청소년보호위원회 (현) 법사랑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비행청소년의 탈선을 예방하고 보호관찰을 통해 올바른 자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했던 공이 지대하다. 은퇴 후에도 사회복지를 넘어서 취미·여가활동으로 음악적 재능을 단련하면서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음악 봉사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 2015년부터 솜사탕 음악회, 김제 미래요양병원 봉사 공연, 삼정골 효도의 집 봉사 공연, 삼강원 봉사 공연 등 사랑나눔 음악회에 참여하여 열정과 보람 가득 아름다운 삶, 즐거운 삶, 새로운 삶 속에서 쉽지 않은 사회복지 공헌에 기여하고 있어 곡성문화원 가족의 이름으로 그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축복 가득하길 기원하는 바이다.

교육문화부문

곡성을 류경수 선생님



교육문화부문 효문화대상은 24년간 곡성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이로 근무하면서 학생들의 인성은 물론 학력향상에 매진하였으며, 과학 분야와 체육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여 홍조근정훈장(대통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년퇴임 후에도 10여 년간 곡성을 자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교육문화 발전에 기여한 류경수 선생님이 수상하게 되었다.

오로지 교육자로서 사명감과 뜨거운 제자 사랑으로

국민교육헌장 이념 구현 지도 표창(교육부장관), 국민정신교육 우수상(교육감), 교육현장 개선 우수(교육감), 교수·학습 방법 개선 연구 우수상(교육감)을 수상했으며, 방학 때마다 어린이 한자교육 지도 봉사활동(곡성읍)을 하는 등 오로지 교육자로서 사명감과 뜨거운 제자 사랑으로 학력향상 및 인성교육 활동에 귀감이 되었다.

과학교육 풍토 조성 및 우수선수 육성과 곡성 짚치기 문화 보급

학생 탐구력 신장 연구 우수상(교육부장관), 학교 자료실 운영 우수(교육감), 과학동산 지도 우수상(과학기술처장관),

기초 과학교육 현장 개선 유공(교육감), 과학교육의 문제점 개선 연구(교육감), 과학 영재교육 지도 우수 교사 표창(곡성교육장), 대한민국 학생 발명 지도교사 우수 표창(국제특허연구원장) 등 수많은 공적으로 과학적 탐구능력 향상 및 과학교육 풍토 조성에 선구자가 되었다.

곡성중앙초등학교에서 5년간 축구부 육성 지도 감독으로 근무하면서 전남학도체육대회 곡성군 축구 대표선수 육성 지도 우수표창(교육감, 교육장)을 받았으며 곡성중앙 농구부 지도 감독 교사, 가는 곳마다 곡성 짚치기 문화 보급 등 학생들의 건강한 체력과 우수 선수 육성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다.

곡성을 자치위원으로 생활 개선 및 교육문화 발전 기여

곡성군 새마을 지도자 지역 주민 생활 개선 및 환경교육에 기여하여 곡성군수 표창을 받았으며, 새마을 직공장회 위원으로서 불우이웃 돕기에 앞장서 집 고쳐주기 활동 등에 참여 봉사하는 등 다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지역사회 공동체 만들기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평생을 오직 한길 교육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뜨거운 교육애를 발휘하여 존경받는 스승의 길을 걸어왔고, 영예로운 정년퇴임 후에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지역사회를 위해 일하는 숨은 봉사자 류경수 선생님께 곡성문화원 가족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린다.

문화예술부문

옥과 한우리 예술단



옥과 한우리예술단(단장 전승길, 감사 한순임)은 2008년 설립해 문화생활로부터 소외된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병원과 노인복지시설을 찾아 문화공연을 펼치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 곡성을 알리는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 그 공을 인정받아 곡성문화원 효문화대상 문화예술부문 상을 수상하게 됐다.

평균 연령 72 세로 구성된 한우리예술단은 “3세부터 100세까지 함께해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봐요”라는 슬로건 아래 젊은 사람 못지않은 체력으로 오늘도 주 2회 이상 활력 넘치게 연습에 매진하고 있다. 재능기부 국내외 행사 공연 활동에 참가하여 심정의 열이 살아 숨쉬는 효의 고장 곡성을 알리는 등 지역문화 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모범이 되는 예술단체로 각광을 받고 있다. 우리 곡성의 심정축제, 장미축제, 석곡 코스모스 축제, 겸면 목화 축제, 곡성군 체조경연대회, 평생학습프로그램 경연대회에 참여하여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으로 대

상, 최우수상의 영예를 수차례 차지했다. 한편, 자매도시인 광주 동구와 의정부시 공연 활동, 구곡순담 100세 효잔치, 농업박람회, 보건의 날 광주 충효동 왕버들 음악회 초청 공연 등 전국 방방곡곡에 곡성 실버예술단의 저력과 곡성의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서울 노년 문화예술제, 전국 실버체조경연대회, 천안 흥타령 대회, 각종 전국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대상, 최우수상 등 우수한 성과를 거양하여 지역 홍보대사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그리고 한국, 중국, 일본 친선 교류 예술제, 동아시아 문화 경연대회, 국제 친선 평화 예술제, 필리핀 문화예술 교류대회 등 국외 대회에도 참가하여 대상, 우수상, 특별상을 수상하여 곡성군을 알리고 국위를 선양하기도 했다.

전승길 한우리예술단장은 “4월부터 심정노인복지센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찾아가는 재능기부 문화공연을 펼칠 계획이며, 예술단원들과 힘을 모아 행복한 곡성을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할 예정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와 같이 고령의 나이에도 젊음을 과시하며 문화예술 분야에 취미를 가꾸고 불우 이웃 사랑 재능기부 및 지역문화 예술 발전은 물론 국내외 문화예술 공연으로 곡성의 홍보대사 역할에 앞장서 일하는 옥과 한우리예술단과 곡성군민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곡성문화원 가족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이다.

대황어화(大荒漁火) 대황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돌실 주변의 공원을 조성하고, 자연 친화형 소화천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본래의 모습을 되찾으려 안간힘을 쏟고 있으나 옛 정취는 그리움으로만 남아있다.

침체된 압록유원지 활성화와 기차마을과 연계된 새로운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죽곡면 태평리에서 목사동면 구룡리를 연결하는 '출렁다리'를 건설하였다. 석곡에서 압록 유원지까지 뛰어난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대황강 출렁다리는 총 연장 185m(진입로 50m, 본 구간 135m)의 보도로 만든 현수교는 약 30~40cm 정도의 흔들림을 5백여 명이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관광명품 다리이다. 특히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리는 미관을 살리고 보성강권역으로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붙잡을 수 있도록 기대되는 대황강의 랜드마크 출렁다리는 2016년 9월 개통하였다. 매년 가을에는 대황강 석곡 천변에서 '코스모스 축제'가 열리고, 강태공들의 대황강 낚시를 비롯 트레킹, 자전거 라이딩, 카누 체험 등 각종

레포츠의 길로서 자리한 곳이다.

대황강 중류 천에는 옛 곡성의 옥내현(죽곡 삼태), 인간문화재 돌실나이(석곡 죽산)와 낙죽장도(목사동 공복), 그리고 태안사와 신승겸장군의 유적지 등이 주변에 산재되어 있어 잔잔한 볼거리가 풍성한 곳이기도 한다.

철을 따라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대황강변을 걸으며 한 번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오색 하늘빛을 머금어 파랗게 부서지는 섬진강물 소(沼)에 사는 은어 떼처럼 때로는 흐르는 강물이 되어 따뜻한 마음을 지닌 의절의 고장 곡성 사람들의 옛 정취를 느껴볼 수 있는 여유로운 멋을 만끽해 보자. 강의 역사에서 우리 조상들의 발자취를 찾아보고 살기 좋은 우리 고장, 날로 새롭게 발전하는 희망 곡성을 창조해 보자.

글/ 전 석곡농악회장
곡성문화원회원 조성형



섬진강의 지류인 보성강은 보성 웅치에서 발원(發源)하여 보성군과 순천시 주암면 광천에 소재한 주암다목적댐 아래 우리 고장 석곡, 목사동, 죽곡을 관류하여 압록 유원지에서 섬진강에 합류된다. 이 강에 유입되는 하천은 석곡천, 유정천, 목사동천, 죽곡천, 동계천 등이며, 보성강과 그 지류의 하천은 협류(峽流)와 급류(急流) 때문에 유역에 산록(山麓)의 좁은 경지를 가지고 있다. 아담한 강줄기와 맑음을 자랑할 만한 보성강 하류에서 햇볕로 고기잡이 하는 아름다운 추억에 비쳐진 국가 하천으로 목사동면 신기리에서 오탁면 압록리까지 약 18km 구간을 곡성에서는 '대황강'이라

한다.

옛 부터 보성강에 8대 어전(일명: 쏘)이 있어 은어, 메기, 쏘가리, 참붕어, 참게, 잉어 등 담수어가 가장 많이 서식하여 지역 주민들은 봄철이면 물고기를 잡아 매운탕을 끓여 먹고 천렵(川獵)하며 노는 풍습이 성행하였다. 여름철에는 햇볕을 들고 물고기를 잡는 햇볕놀이가 아름답다 하여 '곡성 팔경'중 하나인 대황어화(大荒漁火)로 설화처럼 유명하다.

특히 물이 맑고 깨끗하여 다슬기, 조개 등 어패류가 많은 까닭에 다슬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는 농가가 많았다. 한 때는 주암댐 건설로 생태계가 변화하여 보성강



한림학사 조통(趙通)과 성황당 목조 신상



초연히 겨울속인데 호기심에 찾은 곳이 곡성군 옥과 만취정 안쪽 의병장 유팽로 사당 옥산사 옆에 자리한 조그마한 성황당

(城隍堂)이다. 이곳 성황당에는 전라남도 민속자료 제2호로서 남녀 목조신상(木造神像)이 모셔져 있는데 '한림학사 조통'과 관련된 사료와 애뜻한 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경전과 역사 백가에 뛰어나 여러 차례 명종의 부름을 받은 고려 신종 때의 '학사 조통(趙通)'은 1197년(신종 즉위년) 금나라에 원외랑으로서 사신으로 파견되었을 때 두 나라 간의 시비로 3년간 구금을 당하였으나 금나라 사람들이 '학사 조통'의 재주를 아깝게 여겨 돌려보냈다는 일화(곡성문화 2004년 동지 통권 5호)도 있다. 고려 신종(1199년 2월)때 경주에서 민란이 일어났으나 이를 평정 시켰으며, 1200년(신종3) 5월 소부감으로서 중랑장 이당적과 함께 진주에 파견되었을 때는 선정을 베풀어 백성들의 칭송을 받아, 이를 계기로 조정으로 돌아와 좌간의대부 국자감대사성 한림학사에 이



▲옥과 성황당



▲목조신상

르게 되었다. 그 후 '한림학사 조통'은 오세재, 이인로, 임춘, 황보항, 함순, 이담지 등과 함께 '강좌칠현'으로 교류하였다. '학사 조통'은 관직을 버리고 곡성 입면 약천리 고향으로 낙향하자 평소 그를 사모하던 아왕공주가 이곳까지 찾아왔으나 멀리함으로 한을 품고 죽었다고 한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조장군 사당'이라고도 하는 성황당 건물은 단칸 맞배지붕으로 되어 있으며, 그 안에 남녀 목조신상 2구가 안치되어 있다. 이 목조신상은 약 5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전해지며(한국민속 대백과사전) 모두 앉아 있는 상으로 남신상

높이는 84cm, 여신상은 68cm 신상이다.

옥과 성황당은 1914년 옥과현이 곡성군에 폐합되기까지 국행성황당(國行城隍堂)으로 옥과현에서 제사를 지냈으며, 그 뒤 이 지역 무당들이 공주를 가엾게 여겨 죽은 그의 넋을 달라고 한을 풀어주기 위하여 아왕공주와 '조통'의 모습을 나무로 깎아 한 자리에 모시고 해마다 제사를 계속 지냈으나 1930년경부터 중단되었다.

그 목조신상 형태를 보면, 남신상은 무당들이 쓰는 모자를 쓰고 큰 눈썹에 눈이 튀어나와 있어 마치 장승과 흡사하다. 허리에는 흥대를 두르고 중앙에

서 묶었는데, 그 때가 발등까지 내려와 있다. 여신상은 머리에 고깔 같은 것을 쓰고, 얼굴이 남신상보다 정교하여 아름다우며, 모아 쥔 두 손은 무엇인가를 들고 기원하는 모습이다.

이렇듯 '아왕공주와 조통의 설화'는 옥과 성황당 성황신의 유래를 설명하는 고을의 신화적 의미뿐만 아니라 전라도 지방 무속신앙의 무조신(巫祖神)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속신화적 가치가 매우 큰, 우리곡성의 민속자료이다(한국민속대백과사전).

글/곡성문화원 편집인 빙신호



옥과향교가 학생 및 지역민을 위한 문화체험 시설로 거듭나기를



우리 옥과향교는 조선 태조 원년 1393년에 창건되어 그동안 수많은 유생들이 수학(修學)하며 충효(忠孝)·의절(義節), 예향(禮鄕)의 고장으로 탁월한 인물을 수없이 배출한 학문의 전당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현실은 서구화된 생활방식과 물질의 풍요로움 속에서 이기주의적이고 배타적인 개인주의로 인하여 순수한 도덕적 가치관이 오염되고, 고유의 전통 미풍양속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으며 사회 도덕 질서가 와해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최근 정보통신을 접하면 부자형제간의 패륜적 존속 폭행과 범죄가 난무하고 일부 모리

배들은 물질과 권력을 역이용하여 국정을 농단하는 혼란스러운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 심히 개탄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길 없습니다.

존경하는 곡성군민 그리고 유림 여러분!

공자는 입어에 성어악(立於禮 成於樂)을 말하며 인(仁)으로 기준을 세우고 예의(禮儀)로 사회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하였으며, 성현들은 도덕유리와 충효예절(忠孝禮節)을 강조하여 후학(後學)을 인도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유림들은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정신으로 변화하는 시대에 여세추이(餘勢推移)하여 진리와 정의를 실천하는 강한 선비 정신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인의예지(仁義禮智)의 도덕정신이 사라져 가는 현실을 직시하며 본 옥과향교 전교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향교 본연의 교육과 사문진작(司門振作)을 위하여 솔선수범할 것이며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

는 길을 찾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맹세하는 바입니다.

옛말에 인륜의 도와 얼을 바르게 세우는 「강상부식(綱常扶植)」이라는 말처럼 삼강오상(三綱五常) 즉 삼강오륜(三綱五倫)을 바르게 알고 배울 수 있는 인성교육이 있어야 인륜(人倫)의 법도가 바로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옥과향교 유림들의 참여 봉사료 인근 옥과초등학교를 비롯 오산, 입면초등학교 어린이들이들에게 한자, 공수법 등 서당식 인성교육을 실시하여 「효경칭찬생활문화 운동」에 크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창의적인 '옥과 향교 나들이'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그동안 문을 굳게 닫은 채 잠들어 있던 옥과향교가 학생 및 지역민을 위한 문화체험 시설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글/ 옥과향교 전교 김삼중

효(孝)는 모든 덕의 근본이다.



증자가 말하였다.“성인의 덕에 효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지 감히 묻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지가 낳은 것 중에서 사람이 가장 존귀한데 사람의 행동에는 효도보다 중요한 것이 없고 효도는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에는 아버지를 하늘과 똑같이 존경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주나라의 문화를 완성했던 주공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러한 분입니다. 옛날에 주공이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는 주나라의 시조인 후직을 하늘과 나란히 배향하셨고 문왕을 명당에 제사 지낼 때에는 상제와 나란히 배향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이 각각 자신의 직분을 다 하고 제사를 지내러 왔습니다. 대개 성인의 덕 중에 효도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친애하는 마음이 아버지 슬하에서 생겨나 부모를 낳아 공경하는 마음으로 모시게 됩니다. 성인은 존경하는 마음을 근거로 공경하는 법을 가르치고 친애하는 마음을 근거로 사랑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부자 사이의 도리는 천

성인데 더 넓게는 군신사이의 의리가 됩니다. 부모께서 우리를 낳아 주셨으므로 이보다 더 크게 물려받는 것이 없고 임금께서 몸소 우리를 다스리시므로 이보다 더 중요한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타인을 사랑하는 사람은 덕을 어기는 사람이라고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타인을 공경하는 사람은 예를 어기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도리에 따라야 하는데 오히려 이를 거역하면 백성들은 본받을 것이 없을 것이며 또한 선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나쁜 덕에 마음을 두게 될 것이라 비록 그가 뜻을 언더라도 군자는 그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군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을 할 때는 도리에 맞는 지를 생각하고 행동할 때는 즐겁지만 한 것인지를 생각하므로 그의 덕과 의로움은 존중할만한 것이 되고 그가 하는 일은 본받을만한 것이 되며 나아가고 물려감에 법도가 있게 됩니다.

효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실천 덕목입니다. 공자께서도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를 지키는 일이야말로 인(仁)을 행하는 근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인간애의 실현이 효도부터 나온다는 생각은 동양인의 오랜 전통이며 삶의 지혜였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가장 친근하고 가

까운 존재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가족관계가 잘 조화를 이루고 화목해야 사회도 밝고 명랑하게 됩니다. 가족 관계 속에서도 부모와 자신의 관계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이 되는 관계입니다. 자신이 부모로부터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효의 시작입니다. 효를 통해 진정한 인간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으며 부모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자신의 진심을 다해서 남을 대하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효도하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남을 대할 때도 진심을 다해서 대할 것이며 모든 일에 임해서도 충실할 것입니다. 따라서 충과 효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라에 대한 충성이나 신하가 군주를 대하는 것을 충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충은 모든 사람과 모든 일에 진심을 다해서 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효자 집안에서 충신이 나온다는 옛말처럼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는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나 타인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보충하고 나의 행실에 잘못이 있으면 고치도록 해야 했습니다.

글/곡성향교 전교, 곡성문화원 이사 조덕기

호남권 최대규모 어린이 전문 직업체험관 곡성드림하이센터 개관



곡성군은 2017년 4월 25일 호남권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어린이 전문 직업체험관인 '곡성드림하이센터' 개관식을 가졌다. '곡성드림하이센터'는 어린이와 청

소년들의 진로 결정능력을 배양하고 건전한 직업관 형성을 위해 2016년 6월 착공해 2017년 4월 20일까지 총 32억 5천만 원을 들여 지상 2층, 연면적 1,874㎡



규모로 건립되었다.

1층은 안내데스크와 적성검사실을 비롯해 금융전문가, 여행설계사, 기관사, 자동차정비사, 경찰, 소방관 등 10개의 직업체험 프로그램으로, 2층은 아나운서, 방송제작인, 작곡가, 패션모델, 헤어디자이너, 웹툰작가, 유기농셰프, 반려동물전문가 등 17개의 직업체험프로그램으로

총 25개의 체험공간에서 27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유근기 군수는 기념사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우리 어린이들이 이곳에서 체험을 통해 미래의 꿈을 키우고 실현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갖게 되고, 미래의 희망이자 꽃처럼 아름다운 우리 어린이들에게 건전한 직업관 형성과 진로 결정 능력을 배양시켜 주고 싶다는 우리 어른들의 바람이 이제 이곳 '곡성 직업 체험관 드림하이센터'에서 실현될 것이다”고 밝혔다.

글/곡성군청 지역활성화와 농촌개발팀장 정문수

석곡농협, ‘유기농 백세미’ 중국 수출 총력



곡성군과 석곡농협동조합이 친환경단지에서 재배한 누룽지 향이 독특하고 윤기와 밥맛이 너무 좋은 신품종 골든퀸 3호 유기농 ‘백세미’가 중국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 석곡농협 한승준 전무 외 개척단 11명은 최근 중국 서안시 금화그룹 백화점과 섬서한국중소기업산업단지 방문하여 수출과 유통에 관한 논의를 통해 중국진출 가능성을 모색했다.

섬진강기차마을, 3회 연속 한국대표관광지 선정



곡성 섬진강기차마을은 구 역사와 폐 선로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한 증기기관차와 레일바이크로 옛 기차에 대한 추억과 향수를 간직하고 있으며, 수천만송이 장미공원과 요술랜드, 저자 거리를 조성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관리로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여 3회 연속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세계장미축제, 연인들을 위한 축제로 꾸민다



오는 5월 19일부터 28일까지 열흘 동안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제7회 곡성세계장미축제가 개최된다. ‘향기, 사랑, 꿈’이라는 주제와 ‘수천만송이 세계명품장미, 그 동화속으로’라는 의미를 담아내는 장미와 동화의 특별한 콘셉트를 자랑한다.

곡성읍 장애인 희망 노래교실 운영



곡성읍(읍장 양병식)은 곡성읍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을 대상으로 ‘희망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희망노래교실은 노래를 통한 웃음과 스트레스 해소로 즐거운 삶을 찾기 바라며 장애인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곡성장미예술단, 3·1절 민족공동행사 예술공연



곡성장미예술단(단장 오봉순)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 98주년 3·1절 민족공동행사에 초청돼 퓨전국악 예술 공연을 펼쳤다. 곡성장미예술단은 2017년 1월 14명의 단원으로 창단된 새내기 공연팀으로, 그동안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공연을 활발히 펼쳐왔다.

곡성 토란 향토산업 육성사업 ‘가속페달’ 토란가공식품개발과 체험관광시설 구축 추진



흙 속의 보물 토란이 물 맑고 공기 좋은 청정지역 곡성에서 주로 재배되어 농민들의 고소득 작목으로 부상했다. 곡성 토란을 가공식품으로 개발하여 고소득을 창출하고, 곡성 토란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깐토란, 토란대, 토란부각, 토란쿠키, 토란초콜릿, 토란탕·토란갈비찜·토란육개장 등의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있다.



곡성문화원

곡성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거 지방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 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비영리 특별법인으로 곡성군민들의 향토문화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증진시키며 군민의 문화예술적 감성을 개발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방문화원의 사업

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7. 기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곡성문화원 문화예술 진흥 주요 추진 사업

문화행사의 개최

- 저명 문화예술인 초청 강연회
- 초·중·고 학생 진로 멘토와의 만남
- 효녀심청 유치부 사생대회
- 효녀심청 전국 어린이 예술공모전
- 우리 가락 판소리 심청가 한 대목 부르기 대회
- 곡성효문화상 공모
- 청소년 향토문화 강연회
- 곡성 자연환경·문화관광해설사 양성
- 곡성사랑체험활동
- 곡성문화예술단과 함께하는 한가위 노래자랑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 지역 향토자료 조사 및 역사마을 만들기
- 효경칭찬생활문화 운동 실천 사례 발굴
- 곡성문화 소식지 발간
- 내 고장 인물 및 유적지 안내도 제작·홍보
- 향토사료 발간
- 곡성 & 심청스토리 공감 자료관 조성 사업
- 나라사랑 민족사랑 호국보훈 지킴이
- 골짜기 문화재 지킴이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 교육 활동

- 향토문화유적지 순례
- 가훈 및 휘호 써주기
- 고대인물 알리기 및 서화 전시회
-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

곡성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 우리가락 판소리 심청가 배우기 판소리 교실
- 학교 문화예술교육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자운영 독서교실
- 청소년을 위한 곡성 바로 알기 인문학 프로그램
- 어르신 문화학교 제 2의 푸름이 청춘예찬 공예
- 찾아가는 향토사 교육
- 골짜기 문화재 찾기 프로그램 운영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 주민극단 미당극 심청전 여성극단 운영
- 농촌체험마을 도농교류 협력사업
- 애 가고 싶은 곡성 우리 모두 홍보대사
- 현충 시설 및 문화유적 탐방 체험



향기·사랑·꿈

수천만송이 세계명품 장미,
그 동화나라 속으로

제7회 곡성 THE 7TH INTERNATIONAL
ROSE FESTIVAL, GOKSEONG

세계장미축제

2017.5.19(금)-28(일) / 10일
곡성섬진강 기차마을